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조인영** · 이연우*** · 함윤경****

A Qualitative Study on Transitio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Interviews with Daycare Teachers, Therapists, and Parents*

Cho, In-Yeong** · Lee, Younwoo*** · Ham, Yun-Gyeong****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of developing transition program by identifying perception, experience, and demand of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thod]** For the purpose,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5 daycare teachers, 5 therapists, and 10 parents. The collected data were coded by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and classified into 3 themes and 8 sub-topics. **[Results]** First, daycare teachers, therapists, and parents perceived the information about transition education through acquaintances and online. Second, daycare teachers, therapists, and parents have prepared to support thei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develop self-help skills, class attitude, basic learning skills, and adaptive skills. Third, daycare teachers, therapists, and parents requested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institution-family-elementary school and the appropriate curriculum for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lso, they mentioned about the importance of providing the opportunities to practice and expected that it will reduce th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the preparation process of the transition to the elementary school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transition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needs for the teacher, therapist, and parents. Through the process, the child with special needs will experience the successful transition.

Key Words :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ransition education, Qualitative Study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20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 1저자,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Ph D,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yousarang@pknu.ac.kr)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공동저자,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Ph D,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들에게 있어 초등학교 진학은 큰 변화이자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경순, 2006). 유아교육기관을 넘어 기본 학제가 시작되는 초등학교로의 입학은 유아와 가족 모두 처음 겪는 교육적 변화이다. 특히 장애유아에게는 진학 후 새로운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 수업 및 일과에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큰 변화이다. 이러한 교육적 배치의 이동은 장애유아의 발달과정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포함한 일과 전체가 유아교육기관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통합 활동 중심에서 분절된 교과목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되고 학업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유아는 초등학교 전환과정에서 혼란과 적응문제를 겪기도 한다(김외경, 2010; 황순영, 2010).

장애유아가 환경변화에 예민하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서투름을 알기 때문에(김경숙, 최민숙, 진현자, 2001) 부모 또한 자녀의 초등전환과정에서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장애유아의 부모는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반유아 부모보다 몇 배 가중된 부담감을 갖는다(배성현, 손가화, 이병인, 2015). 이와 같이 장애유아의 부모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긴장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불안감과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한다(김미라, 정남운 2004; 최현주, 2011).

초등학교 진학은 연령에 의해 상급학급으로 이동하는(이지연, 2014) 당연한 과정이지만, 어려움도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초등 전환을 위한 사전 교육이다. 전환은 유아와 가족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이동과 같이 새로운 교육적 배치나 서비스로 이동하는 전 과정을 칭한다(Chandler, 1992; Dockett & Perry, 2001).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유아에게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 적응 및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초등 전환을 위한 교육이다(Dockett & Perry, 2001).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환경변화에 민감하며 적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초등학교로의 이동과정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장애유아가 겪게 될 혼란을 줄여주고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익숙한 환경을 연결해 줄 수 있게(이지연, 2014) 계획적인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즉 장애유아에게 초등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학교생활적응 기술, 학업기술, 일상생활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기술을 가르치고(황순영 외, 2011),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전상신, 김은경, 2007).

또한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장애유아의 순조로운 진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전환은 생태학적 관점으로 유아, 가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강미라, 조광순, 2005) 초등 전환과정에서 부모를 위한 지원 역시 중요하다. 장애유아의 입학 준비 과정을 지원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고(이소현, 2004), 장애유아가 초등학교 적응에서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익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초등 전환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장애유아와 가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로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환교육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본 연구(박지은이, 2015; 조민희, 2008)와, 통합학급의 유아교사(김명연, 2013) 및 초등교사(한수진, 2007)를 대상으로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또한 강승완(2011), 김민정(2009), 김해선과 김호연(2010), 이지영(2010)은 초등 전환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배연경, 박재국, 김영미(2010)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김외경(2010)과 김보람(2017)은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전환기술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유아특수교사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전환교육 실태 및 인식과 요구를 살펴본 연구(김선미, 2019; 남이정, 2019; 박금내, 2017; 배성현, 손가화, 이병인, 2013)는 여러 편에 해당하였다. 초등학교 전환을 위한 기술을 분석한 연구(김설아, 김은경, 2018; 김채은, 2012; 이지연, 2014)에서는 전환과 관련한 계획적 중재가 전환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주로 교사 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교육적 지원에 중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는 교육행위를 직접 제공하는 실행자이고, 부모는 자녀가 받는 교육을 지켜보는 교육서비스 이용자이다. 이러한 역할의 차이로 인해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관점과 지원요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연구대상자가 유아특수교사와 통합반 보육교사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대다수의 장애유아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유아의 교육 실행자로서 치료사도 중요한 연구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초등 전환교육에 대해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경험 및 요구를 파악함에 있어 심층적인 내용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입학 앞둔 장애유아의 부모 및 직접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치료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전환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전환교육 지원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집단에 적합한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문제

- 첫째,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초등 전환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을 위해 어떠한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셋째,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의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앞둔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어려움 및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의 최초 선정은 연구자의 지인 중 연구목적에 부합한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e)하였으며, 예비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의 소개를 받은 대상으로 확장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거주 중인 2020년도 초등학교 입학이 확정된 장애유아의 부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또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와 치료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치료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중 연구에 최종적으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보육교사 5명, 치료실 치료사 5명, 치료실을 이용 중인 어머니 5명,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어머니 5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 5명의 장애영유아 보육경력은 1~6년 중 만 5세 담임경력 은 1~3년이었으며 현재 반에서 각 1명의 유아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치료사 5명의 경력은 2~6년에 해당하며 매년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유아를 1명 이상 치료한 경험이 있다. 이 중 4명의 치료사는 현재 치료 중인 유아 중 1명이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1명의 치료사는 2명이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 10명 중 치료실을 통해 섭외한 5명의 부모 중 4명의 자녀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1명의 자녀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었다. 어린이집을 통해 섭외한 5명의 부모 중 1명의 자녀를 제외한 4명의 자녀는 치료실을 다니고 있었다. 자녀들의 치료실 이용 연수는 6개월~6년으로 다양하였으며, 개별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또한 3명의 부모는 비장애인 형 또는 누나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경험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담당한 유아 11명과 자녀 10명 총 21명 중 1년의 입학유예를 한 만 7세 장애유아는 10명이었고, 통합학급으로 진학하는 2명과 일반학급으로 진학하는 1명을 제외한 18명의 장애유아는 특수학급 진학 예정이었다. 면담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Type	Code	Ag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Career Year	Characteristics
Daycare teachers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1	7	Developmental disability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cher in daycare center exclusively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License in special education · 3 years experienc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period
	T2	7	Speech impairment (class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cher in daycare center exclusively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License in special education · 2 years experienc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period
	T3	6	Autism (class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cher in daycare center exclusively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License in special education · 1 year experienc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period
	T4	6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care center teacher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inclusive setting · Daycare teacher license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 1 year experience in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5	6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care center teacher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inclusive setting · Daycare teacher license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 1 year experience in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rapists	T6	6	Brain lesion (class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apist in the social community welfare center · License in speech-language pathologist
	T7	6	Brain lesion (class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apist in the social community welfare center · License in physical therapist for young children
	T8	6	Intellectual disability (class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apist in the social community welfare center · License in sensory integration therapy
	T9	7	Autism (class2) Autism (class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apist in child development center · License in sensory integration therapy · 2 children are going to be the first grade
	T10	7	Autism (class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apist in child development center · License in speech-language pathologist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Participants Type	Code	Age of the child	Name of disability	Child's experience in therapy	Characteristics
Parents	P1	6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6 mon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care center from 12 months Therapy: Speech-language therapy Older brother without disability
	P2	6	Brain lesion (class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care center from 24 months Therapy: sensory integration therapy, speech-language therapy Only child
	P3	6	intellectual disability (class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care center from 24months Therapy: sensory integration therapy, speech-language therapy, cognitive therapy Young sister without disability
	P4	7	Developmental disability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care center from 12months Therapy: sensory integration therapy, speech-language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Only child
	P5	7	Autism (class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care center from 24 months Therapy: sensory integration therapy, speech-language therapy Only child
	P6	7	Autism (class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care center from 36months Therapy: sensory integration therapy, speech-language therapy, cognitive therapy Older brother without disability
	P7	6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care center from the age 5 None in therapy Only child
	P8	7	Developmental disability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care center from 36months Therapy: sensory integration therapy, speech-language therapy Young sister without disability
	P9	7	intellectual disability (class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care center from age 0 Therapy: speech-language therapy, cognitive therapy Only child
	P10	6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ycare center from age 6 Therapy: speech-language therapy Older sister without disability

2. 자료수집

1) 연구도구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김선미, 2019; 남이정, 2019; 황순영 외, 2011)의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예비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별면담의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연구 참여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보육교사 2명, 치료사 1명, 어머니 1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질문문항 중 ‘장애유아에게 초등전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초등전환교육에서 다뤄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자녀(장애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적 내용은 무엇입니까?’와 같이 중복된 내용은 ‘초등 전환교육에서 자녀(장애유아)에게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로 보다 개방적인 질문형태로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수정·보완된 질문지는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경력 14년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1인, 유아특수교육 박사수료 1인의 검증을 받아 질문문항을 완성하였다. 심층 면담을 위하여 개방식 질문과 반구조화 된 질문을 필요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였다. 개발된 면담 질문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Interview Guide Questions

Question contents		
Knowledge	1	How much do you know about transition education to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2	How did you know about it?
	3	What things do you worry about entering to public school for the child(your child)?
Support	4	What are you planning in entering to the public school for the child(your child)?
	5	Do you have any difficulties in preparation?
Needs	6	What do you need in the transition education to the public school for the child(your child)?
	7	What supports are needed to the teacher(parent) for the child(your child)'s transition education?
	8	What are the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ransition education to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층면담법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답변의 비밀유지를 안내하고, 연구와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면담과정이 녹음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참여자의 익명보장과, 연구과정에서 중도 포기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요청 시 전사된 자료를 공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어머니는 주로 자녀가 치료실이나 어린이집에 등원 한 후 개인면담을 요청하여 10명 모두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 5명 중 같은 기관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T 1, T 2) 2명과 치료사(T 7, T 8) 2명은 집단면담을 요구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은 일부 집단면담과 개인면담이 병행되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제공받은 상담실과 어린이집 교실 및 카페와 같은 제 3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각 1회씩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사전에 연구에 대한 안내를 받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라포 형성 과정이 생략되었으며 면담 진행 속도가 빨랐다. 면담과정에서 연구자는 적극적인 경청을 하며,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기록하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메모하여 현장노트를 작성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개인면담은 평균 40분정도 소요되었고 집단면담은 평균 70분가량 소요되었다.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면담 이후 연구결과 도출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유선 전화와 E-mail을 통해 추가 질문을 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Corbin과 Strauss(2008)가 제안한 지속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과 김영천(2013)이 제시한 자료 분석 단계를 따라 전사, 메모작업, 개방코딩, 심층코딩, 주제발견 단계로 분석하였다. 전사단계는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 당시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녹음과 동시에 텍스트 변환 작업을 하였으며, 변환된 텍스트는 가능한 면담 당일에 오타자 및 문장 수정을 하여 전사하자 A4용지 247페이지 분량이였다. 메모작업 단계에서는 전사본을 반복하여 읽고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며 유목화 하였다(Bogdan & Biklen, 2010). 그 후 개방코딩 단계로 연구문제와 관련 있는 문장은 부호화 하여 코딩 후 유사범주로 분류하였다. 계속적으로 연속적 비교를 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속성에 따라 하위범주를 묶어 심층코딩 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주가 포함한 자료를 표현하는 단어와 유사한 수준의 개념을 지닌 용어를 구분지어 하위 자료들을 모두 포함한 코딩 작업(Merriam, 1994)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코딩작업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 단계에서 연구문제에 따른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이해와 연관 있는 단어 및 문장, 문단 등을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각 개념이 드러

나도록 범주화 하였다(김미애, 2018). 예를 들어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교실에 가서’, ‘분위기가 다른’, ‘부적응 막기 위해서’등과 같이 의미상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연결되는 경우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이해범주에 함께 포함시켰다. 그러나 ‘혼자 돌아다니고 하면’, ‘가서 잘 못 지낼 수 있으니까’와 같은 답변은 초등 전환과정에 대한 걱정과 연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둘째, 개방코딩 단계에서 대략적으로 범주화된 개념들을 축 코딩 과정을 통해 재조직하여 구체적으로 범주화 시켰다. 예를 들어, ‘교사가 초등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에 대한 개방코딩 중, ‘학교 가기 전 배워야 하는 것’에 관한 범주 중에서 학습적인 기술과 자조능력처럼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하여 세분화하였다. 셋째, 위의 과정을 통해 조직된 범주와 하위범주들 중 명확히 드러난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코딩을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코딩된 자료를 연속적으로 반복 비교하며 분석하고 범주화 작업을 되풀이하며 26개의 하위범주에서 8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고, 그것을 3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발견된 내용 간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보육교사 1인, 치료사 1인, 학부모 1인에게 E-mail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검토를 부탁하였다. 분석된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유아교육 박사과정 2인 및 유아특수교육 전공자 1인과 동료검증을 실시하여(Creswell, 2011)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Table 3> Results

Q	Keyword	Subcategories	Upper Categories
1	Doing it alone, Prevention of maladjustment	Preparation to adapt in new environment	Awareness in elementary transition education by daycare teachers, therapists, parents
2	With moms, To nearby people Question	Information sharing based on the experience	
3	T Delay in learning ability, No teaching assistant P School adjustment, Disability stigma	Mal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4	T To be able to do it alone, speaking practice P Additional cost payment, Study workbook,	Learning the essential skills required in elementary school	Preliminary preparation for elementary transition by daycare teachers, therapists, parents
5	T No professional learning experience P I don't know if it's the right answer	Pressure by the absence of collaborators	

<Table 3> Results (continued)

Q	Keyword	Subcategories	Upper Categories
6	T Daily life skill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dependent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Elementary transition education demanded by daycare teachers, therapists, parents
	P Academic skill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7	T Education through experts, Standardized instruction manual	Professional support	
	P Professional education for parents, Financial support		
8	T Cooperation with elementary school, Repetitive learning for habituation	Practical experience, Repetitive education	
	P Elementary school opening, Pre-practice, Repetitive learning for habituation		

Ⅲ. 연구 결과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를 대상으로 전환교육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행한 본 연구는 전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3개의 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주제는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의 인식’,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을 위한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의 준비’,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가 바라는 초등 전환교육’으로 나타났다.

1.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의 인식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초등 전환교육을 원만한 초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장애유아에게 준비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각자가 인식한 것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과정’,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공유’, ‘부적응과 문제행동’의 세 가지 하위주제로 분류되었다.

1)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을 위한 준비과정

초등학교 전환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보육교사와 부모는 ‘혼자하고’, ‘스스로 옷 입고’, ‘용변 처리하고’등의 공통된 단어를 언급하여 공통적으로 자조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즉, 보육교사와 부모 모두 초등 전환을 위해 ‘장애유아들이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가는 학교에서 안 놀래고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거요. 수업 시간되면 앉아서 수업 듣고, 쉬는 시간 되어야 나간다는 거 알게 해주고, 반에서 사고 안치게 연습시키는 거요. 또 점퍼도 혼자 벗고 챙기고, 실내화 뭐 이런 거 알아서 챙기게 가르쳐서 보내야 하는 거! (중략) 선생님이 뭐 시키는지 딱 알아듣고 따를 수 있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가 뭐 하고 싶으면 소리 지르는 거 말고 어떻게 하고 싶다고 표내야 하는지 그런 거 해줘야 되는데 잘 안돼요. (T 4, 개인 면담, 2019. 11. 19)

학교적응과 관련해 보육교사는 ‘잘 지낼 수 있게’와 ‘적응기술’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고 치료사는 ‘입학 전 준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부모는 ‘적응할 수 있게’, ‘지낼 때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을 언급하며 학급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교실이며 친구며. 그런 것들에 적응 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시키는 거요. 아니면 가서 너무 힘들어하니깐. 적응 못하고 계속 울고불고하면 문제거든요. 재작년에 형도 입학 할 때 갑자기 교실에 오래 앉아있게 하고 자기랑 친한 유치원 친구 없어서 집에 같이 올 친구도 없다고 3월 초 내내 힘들어 했어요. (P 1, 개인 면담, 2019. 11. 7)

또한 보육교사는 ‘보고 읽을 수 있게’와 ‘학습 기술’을 언급하였고, 치료사 ‘수업 할 때 필요한 기술’과 부모의 ‘글자 연습’, ‘알림장 받아쓰기’에서 변화되는 교육과정을 위해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미리 중재하는 과정입니다. 적응기술이나 학습기술, 사회적 기술 같은 거 늘려줄 수 있게 집중적 개입을 하는 거지요. 초등학교 가면 유치원 때랑은 수업 분위기도 완전 다르고 하니깐요.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수업 따라 갈 수 있게 그때 할 줄 아는 것들을 가르쳐야지요. (T 9, 개인 면담, 2019. 11. 14)

이와 같이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 모두 초등 전환교육에 대해 ‘학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와 ‘스스로 하기’와 ‘학습을 위한 준비하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자신들이 해주던 돌봄과 케어를 벗어나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변화되는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장애유아가 성공적인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준비와 활동을 중심으로 초등 전환교육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에 대한 인식은 보육교사와 치료사간에 차이를 보였다. 보육교사는 교사 1대 다수학생이 되는 학급환경에서 돌봄의 손길이 부족한 것과 관련하여 자조기술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고, 치료사는 획일화되는 교육과정과 분위기에서의 학습기술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였다. 이는 장애유아의 전환교육을 위한 보육교사와 치료사의 관점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공유

초등 전환교육에 대하여 알기 위해 보육교사는 ‘주변 특수반 교사’에게 질의하거나 ‘인터넷’과 온라인 소모임인 ‘장애 엄마들 카페’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였으며 치료사는 ‘경력 많은 교사’와 상담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였다. 부모는 ‘주변 엄마들’과 온라인 소모임인 ‘맘카페’와 같이 자신과 유사한 환경의 모임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인터넷하고 책하고요. 인터넷에 보면 블로그 같은데 우리 애처럼 발달장애인데 입학시킨 부모가 해 놓은 것도 있고 인터넷이나 카페에 입학해서 치면 많아요.

(P 8, 개인 면담, 2019. 11. 13)

작년에 나는 입학유예 시켰는데, 같은 반에 있던 □□이는 학교 갔거든요. 그 엄마랑 친해서 그때 당시 얘기 많이 했어요(중략). 요즘 제 주변 엄마들 사이에서도 너무 걱정 되서 머리 터진다니까요.

(P 6, 개인 면담, 2019. 11. 8)

특히 보육교사와 치료사는 부모와 달리 전환교육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학시 장애유아와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유추하고자 온라인상의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인터넷이나 찾아보고, 물어 물어서 전달해주는 정도밖에 못하지요. 주변 특수반 교사한테 ‘너희는 뭐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거기 카페 있잖아, 엄마들 모이는. 거기에 검색하면 글하고 달린 댓글 다 나와요. 거기 보면 왜 그런 댓글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시킨 엄마입니다」 그 엄마가 단 댓글 보면 학교 가니까 뭐가 제일 힘들더라 하는 게 리얼하게 적혀있어요.

그거 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으니까 하기가 쉽지요.

(T 1 T, 2, 집단 면담, 2019. 11. 8)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 모두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다양하지 않았으며, 입학예정인 초등학교에서 발송되는 안내문 및 통신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부모는 2명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와 치료사 그리고 부모는 초등 전환에 대해 ‘경험 많은 선배’와 ‘자조집단 간 정보공유’ 및 ‘공개된 정보 검색’을 통해 취득된 정보를 기반 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적응과 문제행동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경우 ‘돌아다니고 하면’, ‘수업 못 따라가’, ‘찍혀서 쫓겨나면’, ‘풀지 하면’과 같은 단어에서 수업 참여 및 집단 내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걱정이 나타났다. 또한 ‘잡아당길까봐’와 같이 사회관계와 관련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치료사의 ‘보조교사 없다고’, ‘선생님도 힘들다고’와 부모의 ‘보조교사가 없는데’와 같은 언급에서 수업 및 생활 보조 인력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나타났다.

학교 가면 도우미 같은 선생님이 없으니까 혼자 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잘 따르고. 애는 일반학교(특수반) 가는데 수업도 못 따라 가고 혼자 복도 돌아다니고 하면 선생님이 안 봐줄 것 같아요(중략). 자기가 좋다고 친구한테 얼굴 들이밀고 해서 쫓겨지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그럴까봐. (T 3, 개인 면담, 2019. 11. 13)

친구 사귀는 게 걱정이지요. 가서 만날 혼자 있거나, 아니면 누가 자기 옆에 오면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문제되면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도 찍힐걸요? (중략) 엄마말로는 그 학교 가면 보조교사도 없다고 하던데 선생님이 힘들지 않겠어요? (T 6, 개인 면담, 2019. 12. 5)

부모는 ‘뭘든지’, ‘잘 지낼까’, ‘적응도 못하고’, ‘못 챙겨 줄까봐’를 언급하며 보육교사, 치료사와는 달리 낯선 초등학교에서의 생활 중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걱정과 ‘선생님도 힘들다고’, ‘왕따 되거나’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또래와 담임교사와의 관계형성의 서투름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이지요. 솔직하게 말하면 입학식부터, 가서 너무 표 날까 봐요. 다른 엄마들도 보고 있는데... 제 판에는 해준다고 하고는 있는데, 가서 너무 그러면 선생님도 케어가 안 될까 봐요. 특수반이라고 해도 보조교사가 없으니까 화장실도 걱정이고. (P 8, 개인 면담, 2019. 11. 13)

말이 좀 늦다보니 안되면 때리고 밀고 이러니까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문제 생길까 봐요. 통합반인데 그러면 친구 사이에서 왕따 되거나 엄마들 사이에서 말 돌고... 선생님도

힘들다고 할까 봐요.

(P 10, 개인 면담, 2019. 11. 29)

새로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보육교사와 부모, 치료사가 동일하였으나, 관점에는 차이를 보였다. 보육교사와 치료사는 문제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행위를 이야기 하며 초기 담임교사와의 부정적 관계형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부모 간에도 입학 학교에 따라 다른 인식이 발견되었다. 특히 통합학급으로 진학하는 유아의 부모는 다른 부모의 시선과 낙인과 관련된 언급도 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자녀의 초등 입학에서 '새로운 환경 변화'와 '사회적 기술의 부족'과 '부족한 학습능력'과 관련된 걱정이 나타났다. 초등 전환을 앞두고 장애유아의 부족한 능력과 결부시켜 학교생활의 적응 및 수업태도와 사회관계 형성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 모두 초등 전환교육을 이와 같은 장애유아의 부족한 능력을 향상시켜 입학 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준비단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 전환을 위한 교육 내용에는 집단 간 인식의 차를 보였다. 보육교사들과 부모들은 초등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로 자조기술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치료사들은 학업기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는 초등 전환과정에서 장애유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대상에 있어서는 동일 집단 내에서도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 모두 담임교사와의 관계형성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특수학급이 아닌 통합학급으로 진학을 하는 장애유아의 부모는 이와 더불어 다른 학부형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2.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을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의 준비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장애유아에게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초등학교에서 필수적인 능력 갖춰주기'와 '협력의 부재로 인한 부담감'의 두 가지 하위주제로 분류되었다.

1) 초등학교에서 필수적인 능력 갖춰 주기

보육교사 5명 중 통합학급 담임교사 1명을 제외하고는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혼자 해보게', '대답하게', '따라 읽는 거', '말해보는 연습', '의자에 앉아서', '바르게 앉거나' 등과 같이 자조능력을 길러 학교 수업을 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

단어카드 들고 읽어보라고 해요. 아직 글자 잘 모르거든요. 그림보고는 말하는데 글자만 보여주면 특히 받침 있는 거 잘 몰라서요(중략). 평소 수업할 때 드러눕지 말라고 계속 “바르게 앉아야지, 허리 펴고.”하면서 자세도 신경 쓰고 있어요.

(T 5, 개인 면담, 2019. 11. 22)

초등 전환을 위해 치료사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보육교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치료사는 ‘카드 보고 고르는’, ‘숫자카드 집게’, ‘카드 보고 단어 따라 말해보게’, ‘기본도형 명칭을 알 수 있게’와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준비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기초학습능력과 관련해서 준비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건 안하구요, 기본도형 명칭 알 수 있게 시각카드 활용하기도 하고, 점선 따라 굿기를 주로 많이 해요. 이게 되어야 글자도 따라 쓰고 하니깐 요즘 집중 훈련 시켜요(중략). 수를 따라 읽진 않더라도 제가 숫자 부르면 숫자 카드 집거나 하는 거나 간단한 단어는 따라 말해보게 하고 있어요.

(T 9, 개인 면담, 2019. 11. 14)

부모 10명 중 5명은 치료실과 발달센터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정식 전환교육을 받고 있었다. 4명의 부모는 기존 치료수업에 치료사와 의논하여 글자 따라 읽기나 숫자와 같은 학습적인 부분을 추가로 병행하고 있었고, 1명의 부모는 별도로 12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초등전이 프로그램’을 시키고 있었다. 또한 정식 전환교육을 받지 않는 부모 5명도 가정에서 혼자하기, 인사하기 같은 기본생활 습관형성과, 실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자녀에게 이야기 해주기, 함께 책 읽으며 말하기와 같이 입학에 위한 준비를 가정에서 하고 있었다.

언어랑 감각통합, 인지치료 3개 받고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야 한다고 한글하고 숫자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학습지 선생님도 오세요. 와서 링크라고 PAD로 되어 있는 거로 글자수업해요. 자도 집에서 아이랑 같이 해주구요.

(P 3, 개인 면담, 2019. 12. 3)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만 가르쳐요. 화장실도 혼자 다녀오게 하고, 양치질도 혼자 하게 하고, 아직까지 엉망으로 하긴 하는데(중략).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 만나면 인사시키는 거도 연습해요. 구분해서 인사 하는 거! 어른한테는 “안녕하세요.”하고 친구는 “안녕?”하는 거 연습해요. 쳐다보고 손 흔들고, 그럴 때 어른들이 뭐 물어보면 쳐다보고 “네.” 대답하는 그런 거 연습시켜요

(P 5, 개인 면담, 2019. 12. 6)

이와 같이 보육교사는 입학 후 도움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하며 ‘자조 능력’을 준비시키고 있었고, 또한 변화되는 수업 환경에서의 문제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언급하며 ‘바른 수업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치료사는 주로 학업기술과 관련된 단어를 주로 언급하며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와 치료사 모두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내용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부모는 놀이중심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초학습능력은 주로 치료실을 통해 가르치고 있었고 가정에서 자녀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기본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연습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로 ‘자조능력’, ‘학습기술’, ‘기본생활습관’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2) 협력의 부재로 인한 부담감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 준비과정에서 보육교사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서’와 치료사는 ‘아는 건 없고’, ‘정보 없고’, ‘가이드라인 없으니까’처럼 초등 전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는 ‘결과물이 안 나오니’, ‘주말 지내고나면 리셋’을 언급하였고 치료사는 ‘표가 빨리 안 나니까’, ‘엄마 눈치’에서를 언급하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유발됨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는 ‘애가 싫어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샘을 내서’처럼 장애유아 관련 교육에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통합 반에서는 일반유아가 상황을 질투하기도 하여 힘들다고 하였다.

정보도 많이 없고 가르칠 때 막막해요. 누가 도와줘요? 엄마들은 해달라고 말만 하고...(중략). 자기 혼자 뭐 한다고 느끼니깐 화내요. 제가 요새 자꾸 입으로 소리 내라고 하니깐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지 쳐다보면 더 입 딱 다물던데... △△가 딴 건 괜찮으니까 계속 말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울었대요(중략). 내일 또 안 온다 하는 거 아니야? (T 2, 집단 면담, 2019. 11. 8)

해도 빨리 표가 안 나니까 엄마들이 좀 그러죠. 엄마들 입장에서는 차도가 없으면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중략). 그날은 활동지 결과물이 적었지요. 그랬더니 엄마가 좀 그런 눈치더라고요. 자기들도 돈 내고 시키는데 확 표가 안 나니까 좀...(중략). (T 8, 집단 면담, 2019. 11. 21)

부모 역시 ‘잘 몰라서’, ‘맞게 하는 건지 불안하고’를 이야기하며 비전문가인 자신에게 확신이 없어 불안해하고 있었다. 또한 ‘도와줄 사람 없고’, ‘협력자가 없어’, ‘어린이집에 부탁’, ‘별난 엄마 되는 것 같아서’처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곤란함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이거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치료실에 맡기죠. 맡기긴 하는데 자꾸 돈이 드니까(중략). 어린이집에도 해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안한다 하더라고요. 혼자 동동대는 거지요 뭐(중략). 집에서는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뭐 할 줄을 몰라서요.

(P 1, 개인 면담, 2019. 11. 7)

2학기 되면서 불안해서 제가 어린이집에 해달라고 하니깐 할 게 워낙 많다고, 그런 건(학교)들어가기 전에 한 12월쯤부터 한다고 하고. 자꾸 제가 해달라고 하니깐 별난 엄마 되는 거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거 어린이집에서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엄마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P 6, 개인 면담, 2019. 11. 8)

이와 같이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부족과 주변의 적절한 도움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의지할 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조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 모두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은 주로 자신들이 초등 전환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한 자조기술을 중심으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치료사들은 쓰기, 읽기와 같은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유아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가 바라는 초등 전환교육

장애유아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입학과 생활을 위해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었으며, 이는 ‘장애유아의 홀로서기를 준비시켜 주는 교육’과 ‘보육교사와 치료사 그리고 부모를 위한 전문 지원’, ‘실제체험과 반복적인 교육’의 세 가지 하위주제로 분류되었다.

1) 장애유아의 홀로서기를 준비시켜 주는 교육

보육교사는 ‘잘 지내는’, ‘친구들이랑’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스스로’, ‘독립적인’과 같은 자조능력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 치료사는 ‘일상생활 기술’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언급하였다. 부모는 ‘독립적인’, ‘안 도와주면 잘 못하잖아요’, ‘혼자 하도록’, ‘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과 같이 초등 전환교육에서 자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상생활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옷 입고 화장실가고 이런 것, 앉아 있는 것, 연필 잡는 것 모두 다. 스스로 혼자 하는 것. 이게 안 되면 적응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도 힘들고 악순환 되는 것 같더라고요. (T 7, 집단 면담, 2019. 11. 21)

또한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남들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언급하며 초등 전환교육에서 입학 이후 친사회적 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남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지요. 선생님하고 눈 맞추고 인사하고 친구들하고 나눠 쓰고 뭐 그런 것들이요. 애는 입학도 한번 유예했고 학습적인 부분이 우선시 될 것 같진 않아요. 교실에 들어가고 종치면 앉는 거 배워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쳐서 보내야 되니까요. (T 1, 집단 면담, 2019. 11. 8)

그냥 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기술 이런 거요. 지금 어린이집은 계속 재원해서 친구들도 거의 같으니까 상관없는데, 학교가면 새로운 친구들 뿐 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연습? 교육?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어요(중략).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혼자 하는 습관도 길러주고요. 혼자 못해서 못 다닐까 봐요. 무조건 혼자 하는 것들을 단계별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P 10, 개인 면담, 2019. 11. 29)

그리고 부모는 보육교사나 치료사와 달리 ‘읽기수업 같은’과 ‘쓰기 읽기 산수’, ‘체계적인 수업’을 언급하며 초등 교육과정을 따라 갈 수 있는 선행학습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체계적인 수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꾸준하게(중략). 쓰기 읽기 산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못 가르치단 말이예요. 제가 하자 하면 (아이가) 성질내거든요. 단계별로 착착 수업해주면 학교 들어가서도 잘하지 않을까요? (P 4, 개인 면담, 2019. 12. 4)

이와 같이 보육교사와 치료사는 장애유아 측면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필요한 ‘자조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는 이와 더불어 ‘학업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기술 신장을 위한 활동이 초등 전환교육에서 다뤄지기를 요구하였다.

2)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를 위한 전문적 지원

보육교사의 ‘우리 교육도’, ‘따로 모아서’와 치료사의 ‘전문가가’, 부모의 ‘모아서 교육해 주는’과 ‘가르쳐 주시면’에서 보육교사와 부모는 효율적인 초등 전환교육을 위해

별도의 전문교육 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사의 경우 별도의 교사교육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돈 받고 하는 교육이요! 잠시 만요(전화기 검색해서 보여줌. 서울 관악구 외 4개 구 연합 육아종합지원 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2018 초등전이교육 '초등학교에 가요' 홍보용 자료). 이거요! 봐요! 발달지연 장애유아 6명 모아서 5만원이면 내고 할 만하다니까요. 일정 보세요! 애들은 진짜 교실에서하고, 그 시간에 우리도 따로 교육하고,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P 8, 개인 면담, 2019. 11. 13)

뭐니 뭐니 해도 정식교재가 있으면 싶네요. 특히 누리과정하고 연계해서, 그거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도는 아니까요. 아니면 우리끼리 모아서 교육 좀 해주던가(중략). 초등학교에서 뭐하는지, 뭐를 어떻게 얼마나 배우는지 알고 싶어요. 학교 일과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T 3, 개인 면담, 2019. 11. 13)

치료사와 보육교사는 '표준화 된 것', '지도 계획서'와 '중구난방인 자료들'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교육할 때 필요한 체계적인 교단지원 자료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보육교사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봐 주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초등학교랑', '정보 공유', '만남의 장'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와 치료사는 효율적인 초등 전환교육을 위해 실재를 반영한 전문 자료 및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른 것 보다 그게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표준화된 교재나 서적이요. 지금은 참고해서 볼 만한 게 거의 없어서 힘들거든요. 그런 자료가 생긴다면 충분히 개별화 작성하고 치료시간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몰라서 제대로 잘 못한다니까요.

(T 7, 집단 면담, 2019. 11. 21)

교사를 위한 지도 계획서가 보급되면 좋겠어요. 나는 그 사람 좀 나와 주면 좋겠다. 장학사 같은! 특수교육청이나 육종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봐 주는 사람들이요. 와서 2학기쯤에 와서 우리 교육도 해주고.....(중략).

졸업한 엄마들과 '만남의 장' 만 있어도 좋겠다. 우리도 졸업하고 보낸 엄마들한테 생생하게 정보 얻고 뭐가 필요했는지 알면.....(중략). 초등학교 특수교사랑 좀 만나게 해주면 뭐 필요한지 물어보고 내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면 되니까.

(T 1, T 2 집단 면담, 2019. 11. 8)

부모는 '금전적'과 '지원금',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와 같이 현재 초등 전이 준비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 시켜 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초등학생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지원이지요. 지금도 치료실 다니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도 원래 정해진 감통시간에 나가는 진도 빼서(중단하고) 통합실에서 친구랑 같이 있어보기 이런 거 하나. 돈이 더 있으면 원래 자기 수업할 거 하고 추가로 했겠지요.

(P 6, 개인 면담, 2019. 11. 8)

애들 먼저 학교 가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동안 우리도 따로 모아서 가르쳐 주는 부모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면 아무래도 전에 비해(어린이집 다닐 때)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게 달라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P 4)

이와 같이 초등 전환교육에 대해 보육교사는 ‘교사교육’과 ‘전문적 지원 및 자료’와 ‘초등학교와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치료사는 ‘전문적 지원 및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는 ‘부모교육’과 ‘재정적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요구를 종합하면 초등 전환과정에서 장애유아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통해 장애유아에게 쉽게 교육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제체험과 반복적인 교육

보육교사는 대부분은 ‘실제 초등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 치료사는 ‘초등학교 가보고’와 ‘학교 같은 분위기’를 언급하였다. 부모도 ‘진짜 학교’, ‘앞으로 생활하는 곳’, ‘학교 개방해줘서’, ‘수업시간 맞춰서’를 이야기 하며 초등 전환교육 내용에서 실제 변화될 학교 환경을 미리 경험시키거나 반영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 모두 ‘반복 연습’, ‘꾸준히’, ‘습관화’, ‘반복적인’을 언급하며 여러 번 다뤄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제일 좋은 거는 초등학교에 예비교실 그런 곳에서 주 1회 정도 체계적으로 입학 전 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12월, 겨울방학, 2월 어느 시기든 다 좋겠지요. 시기가 중요하다기 보단 학교에 가보는 연습도 하고, 수업처럼 공부도 해보고, 새로운 선생님과 얼굴도 익히고, 그렇게만 되면 좋겠어요.

(P 1, 개인 면담, 2019. 11. 7)

진짜 학교 같은 분위기? 뭐 그런 진짜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일 것 같아요. 여러 번 꾸준히 해주는 거(중략). 우리 애 입장에서 전환교육 거기에 꼭 필요한건 실제 연습이에요. 학교랑 같은 분위기

에서 학교 수업 받듯이 수업하고, 쉬는 시간하고 또 수업하고 하는 시간표 따라서 미리 하는 수업. (P 9, 개인 면담, 2019. 11, 28)

또한 효과적인 초등 전환교육을 위해서 부모와 치료사는 ‘어린이집에서 해주면’과 ‘가정과 어린이집이 연결해서’를 이야기 하였다. 보육교사는 ‘집에서도’와 ‘양쪽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학교랑 연관되어서’를 언급하였다.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 모두 각 집단의 연계를 이야기 하였으나, 치료실이 주체가 된 연계나 별도교육을 언급하진 않았다. 또한 부모와 보육교사 및 치료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초등학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해진 소리겠지만 어린이집과 가정 양쪽 모두가 노력해야 되요. 우리가 가르치면 집에서 해주고, 한쪽만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센터도 다니니까 세 군데가 다 힘을 모았을 때가 제일 잘 될 거 같은데요. 한군데서만 하면 진짜 엄청 오랜 시간만 든다니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개입하는 것도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도 여러 번, 미리 입학 전에 가 보게요. (T 3, 개인 면담, 2019. 11. 13)

센터랑 어린이집이랑 부모 세부분의 합이 다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한 곳에서만 한다고 효과가 없어요.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일단 반에 애들이 많으니까 학교 같은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중략). 길면 길수록 좋다고 봐요. 반복적인, 최소 한 학기는 해 주면 좋겠지요. 실제로 2월 달에는 초등학교도 가보고, 교실에도 앉아도 보고 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 5, 개인 면담, 2019, 12, 5)

이와 같이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가 요구하는 효과적인 초등 전환교육은 ‘미시체계 간 협력’, ‘지속적인 교육’, ‘실제 환경에서의 연습’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과 유·초 교육기관 및 치료실이 협력하여 실제적인 교육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할 때 장애 유아를 위한 초등 전환교육의 효과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장애유아의 부모, 보육교사, 치료사를 대상으로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제적 지원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초등 전환교육을 초등입학 이후 장애유아가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고 적응을 돕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유아가 겪게 될 어려움을 포함한 초등 전환과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주변인의 경험담과 온라인상의 회원제 카페에 공개된 사례를 통해 얻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사들이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힘들다는 김선미(2019), 최일선, 조운주(2016)와 부모들은 새로운 교육기관에 대한 입학 정보를 주변인에게서 찾는다는 강미라, 서현아(2018)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선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득된 정보는 매우 사실적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의 유아발달 수준이나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다. 또한 부모, 교사, 치료사가 겪은 경험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임으로 왜곡된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 전환과정에서의 사실적 정보가 전수될 수 있는 정보공유 방법과 전달 체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분산되어진 정보의 체계적인 취합을 통해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의 초등 전환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전환교육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 모두 장애유아의 원만한 초등학교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지원방법 및 교육내용에서 각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보육교사는 자조 능력과 수업 태도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치료사는 학습준비와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가정에서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신경 쓰지만, 학업기술훈련은 치료실과 발달센터의 치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장애유아 담임교사는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전환 활동을 주로 계획하고(남이정, 2019), 부모는 초등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가정에서 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황순영 외, 2011)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부모가 초등교육과정에서 학습과 관련된 기술을 강조하는 것처럼(김경빈, 정혜옥, 2017; 김창복, 이신영, 2013), 장애유아 부모도 초등학교 생활에서 적응만큼 학업능력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모는 학습기술에 대한 교육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치료실을 통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어린이집과 치료실에 바라는 교육적 요구가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초등 전환과정의 교육내용에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기술 중 자조기술은 중요시 하지만 학업기술의 비중을 낮게 바라보며 관련 교육을 거의 실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와 치료사는 장애유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해 자조기술과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부모는 이와 더불어 학업기술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집단이 현재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학습기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즉

초등 전환교육의 내용에는 장애유아가 자립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준비와 기초적인 학업기술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자신들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과(신윤재, 2016; 이지영, 2010),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환관련 교육실행 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과(남이정, 2019; 박금내, 2017; 임미진, 이병인, 2017) 유사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일부 장애유아 담임교사들은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가이드북과(경기도교육감, 2015) 초등입학적응 지원 길라잡이를(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2017)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과 관련된 안내가 부족하여(남이정, 2019) 전환교육 실행과정 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소거시켜주고 교사의 전문역량을 강화시킬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는 효과적인 초등 전환교육을 위해 유아교육기관-가정-초등학교의 정보공유 및 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준비 과정에서 초등학교 협조 부족이 유아특수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안선영과 조윤경(2014)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논의할 수 있다. 전환과정에서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교육적 격차를 줄이고 유아의 적응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양지애, 2017)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치료사와 부모, 관련 전문가 간의 상호 협력적인 체계는 장애유아의 초기 학교 적응을 원만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초등 전환교육은 장애유아가 실제적인 경험할 수 있게 유아를 둘러싼 미시체계 간의 협력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보육교사와 치료사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교사와 장애통합 어린이집 교사, 치료사의 요구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교사와 치료사가 실행하는 초등 전이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넓혀 초등 전환과 관련된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 등에 대해 심층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포함하여 각 교육기관의 교사의 인식 및 요구 비교를 통해서 유아특수교육 현장에 적합한 초등 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를 별도로 면담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환교육 관련 주요 문제에 대해 각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면담을 실행함으로써 전환교육과 관련된 인식 및 요구가 도출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을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교사를 위한 전문교육 및 교단지원 자료에 대한 요구가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별도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이는 비단 초등 전환과 관련된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 사안으로 장애유아가 비주류인 유아교육현장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일반유아의 교수-학습 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교단지원 차이는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교육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아특수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지원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Ahn, S. Y & Cho, Y, K (2014). Current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Elementary School Experienced Full Inclusion at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6*(2), 255-285.
[안선영, 조윤경 (2014). 어린이집 완전통합을 경험한 장애아동 부모가 인식하는 초등 통합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6*(2), 255-285.]
- Bae, S. H & Son, K. H & Lee, B. I (2013). The Perception of Inclusive Childcare Center Teachers for situation of Implementation and Importance of Transitional Support process to the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3*(4), 83-109.
[배성현, 손가화, 이병인(2013).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초등학교 전이지원 과정 실행현황과 중요성에 대한 통합교사의 인식. *유아특수교육연구, 13*(4), 83-109.]
- Bae, S. H & Son, K. H & Lee, B. I (2015). A Study on Difficulties & Support Needs for Implementation Process of Transition Support by Inclusive Childcare Center Teachers'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5*(1), 43-71.
[배성현, 손가화, 이병인 (201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가 경험한 전이지원 실행과정 상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5*(1), 43-71.]
- Bogdan, Robert , Biklen, Sari Knopp(2010).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5th ed.* Seoul: Koungmoonsa.
- Chandler, L. K. (1992). Promoting children's social/survival skills as a strategy for transition to mainstreamed kindergarten program, In S. L. Odom, S. R. McConnell, & M. A. McEvoy(Eds.),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Baltimore: Paul H Brookes Pub.
- Cho, M. H (2008). A Study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of Transi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조민희 (2008). 초등학교로의 전이교육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oi, H. J (2011). Reserch of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and Need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Transitioning into the Elementar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최현주 (2011). 초등학교 전환과정에서 장애 아동 부모의 인식·참여·요구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oi, I. S & Cho, W. J (2016).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n Preparations and Supports for Entering Primary School as a Part of Articulation between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0(2), 163-186.
[최일선, 조운주(2016). 유·초 연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준비 및 지원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육아정책연구*, 10(2), 163-186.]
-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Los Angeles, CA: Sage
- Croswell, J. W(2011). *Research design :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 approaches*. Seoul: Sigmappress.
- Dockett, S. & Perry, B. (2001). Starting school: Effective transitions. In: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September 2001, 3(2), 23p.
- Han, S. J (2007). Perceptions of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working in inclusive education on transition education to elementary school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한수진 (2007). 장애 유아 초등학교 전환에 대한 통합교육 담당 유아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wan, S. Y (2010).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the Critical Skills Required Entering the General Elementary School for Infants with Special Need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3(3), 53-69.
[황순영 (2010).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주요기술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25(3), 53-69.]
- Hwan, S. Y & Kang, Y. S & Park, J. K & Kim, J. K (2011). Kindergarten Parents'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Demand for the Skills Required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to Enter the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Disabilities*, 8(1). 125-139.
[황순영, 강영심, 안성우, 박재국, 김자경 (2011). 장애유아의 초등전이기술에 대한 부모의 중요도 인식과 요구. *학습장애연구*, 8(1), 125-139.]
- Jeon, S. S & Kim, E. K (2007). Teachers's Perception of the Skills Necessary for Success in the General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7(1), 1-20.
[전상신, 김은경 (2007).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전이 시 성공적인 학교적응에 필요한 기술-일반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7(1), 1-20.]
- Kang, M. R & Cho, G. S (2005). Parents and Teachers' View on Strategies of Effective Transition to Kindergarte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8(2), 323-355.

- [강미라, 조광순 (2005). 효율적 유치원 전환 방안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의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2), 323-355.]
- Kang, M. R & Seo, H. A (2018). Concept Mapping of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 o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for Culturally Diverse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9(2), 283-309.
- [강미라, 서현아 (2018). 다문화 특수아동의 유치원 전환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개념도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9(2), 283-309.]
- Kang, S. W (2011). A Research on the understanding of Parents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the Transition into the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강승완 (2011). 초등학교 전이에 관한 장애유아 부모의 인식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B. R (2017).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f Parent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Transfer Skill of Child with Disabiliti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김보람 (2017). 장애유아의 초등전이기술 습득 실태 및 중요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C. B, & Lee, S. Y (2013). Mothers Stories on Their Childrens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Adjustment.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2(3), 319-350.
- [김창복, 이신영 (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 미디어연구**, 12(3), 319-350.]
- Kim, C. E (2012). The study on the necessary adaptive skill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ir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Internationa lUniversity of Korea.
- [김채은 (2012).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전환을 위한 적응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H. S & Kim, H. Y (2010).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Parents with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bout Transition from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to Elementary School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6(3), 66-85.
- [김해선, 김호연 (2010).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과정에 대한 부모 인식조사. **시각장애연구**, 26(3), 66-85.]
- Kim, H. Y & Cho, Y. K (2009). Survey On Elementary And Pre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Transition Skills Needed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t The Entrance Of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1(3), 157-178.
- [김화영, 조윤경 (2009).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기술에 대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기대 수준비교. **특수아동교육연구**, 11(3), 157-178.]
- Kim, K. B (2017). The study on early children's preparation for entering elementary school according to type of institutions and parents' recognition difference in school readines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김경빈 (2017). 취학 전 유아의 기관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 준비 현황과 학습준비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Kim, K. S & Choi, M. S & Jin, H. J (2001). A survey of needs of parents and teachers for implementation of parent involvement program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program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6(3), 77-94.
- [김경숙, 최민숙, 진현자(2001).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36(3), 77-94.]
- Kim, M. A (2018). An explor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 in labor process of managing Nuri Curriculum.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7(1), 215-249.
- [김미애 (2018). 누리과정 운영의 노동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일에 대한 탐색. *어린이 미디어연구*, 17(1), 215-249.]
- Kim, M. J (2009). Parents' Recognition on the Readiness for School to Entrance into an Elementary school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Kindergarten Special Class and Lower Special Class of Elementary School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김민정 (2009). 장애 유아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학교 준비도에 관한 유치원 특수학급 및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급 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M. R & Chung, N. W (2004).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1), 201-216.
- [김미라, 정남운 (2004). 장애아동 어머니가 자녀의 초등학교 통합직전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201-216.]
- Kim, M. Y (2013).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Inclusive Classroom Teachers regarding the Transition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from Kindergarten into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김명연 (2013). 발달지체 유아의 초등학교 전환에 대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조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O. K (2010). A study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demand for the skills requir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nter the general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김외경 (2010). 장애유아의 초등전이기술에 대한 유아교육 교사와 부모의 중요도 인식과 요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S. A & Kim, E. K (2018). The effects of an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program on social skills and academic preparation skills of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3), 1-32.
- [김철아, 김은경 (2018). 초등학교 전이 지원프로그램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학업준비기술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8(3), 1-32.]
- Kim, S. M (2019). A Study on Teachers'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Process : Focused o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pecial Child Care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김선미 (2019). 초등 전이과정에 대한 장애유아 담당교사의 인식: 경기 지역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Y. C (2013). *Case Studies*. Seoul: Academypress
-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Lee, K. Soon (2006). A Review on Assistive Technologies to improve Academic and Social skills for the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Special Education Research*, 5(10), 5-26.
- [이경순 (2006).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학업 및 사회성 기술증진을 위한 보조공학 활용에 관한 고찰. *특수교육*, 5(1), 5-26.]
- Lee, J. Y (2014). A Survey of Perception and Needs of Paren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Elementary Teac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Transition Skills into the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이지연 (2014). 장애아동의 초등전이기술에 대한 부모와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요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J. Y (2010). The Perception of Family for Transition Preparation Process in Kindergarten into the Elementary School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이지영 (2010). 발달지체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준비 과정에 대한 가족의 인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im, M. J & Lee, B. I (2017) Difficulties & Support Needs of the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the Public Kindergartens for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Admission fo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7(3), 89-117.
- [임미진, 이병인 (2017). 발달지체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에 대한 공립유치원 유아특수 교사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7(3), 89-117.]
- Lee, S. H (2004).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eoul: Hakjisa.
- [이소현 (2004). *유아특수교육*. 서울: 학지사.]
- Merriam, B. S. (1994).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eoul: Yangsouwon.
- Nam, L. J (2019). Current Situations of Supports for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Support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Special School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Education.
- [남이정 (2019).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지원 운영 실태 및 특수학교 유아특수교사의 지원 요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J. E. I (2015). Study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cognition on Developmental Delay Children's Elementary School Transference.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박지은이 (2015). 발달지체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K. N (2017). The current status & Obstructive Factors of Integr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Support to Disabled Children's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박금내 (2017). 발달지체유아 통합교육기관의 초등학교 전이지원 실행 현황과 방해요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in, Y. J (2016). The Effects of a Transition Support Program to Elementary School on School Readiness fo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Their Mother's Parenting Effica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신윤재 (2016). 초등학교 전이 지원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유아의 학교 준비도와 어머니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Gyeonggi-do Province (2015). *Guidebook for the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admissions for infants subject to special education for general teachers and special teachers*. Sowon: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교육감 (2015).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가이드북**. 수원: 경기도교육청.]
- The Department of Education &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17). *A guide to elementary school entrance application*. Changwon: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2017). **초등입학적응 지원 길라잡이**.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 Yang, J. A (2017). Development of a kindergarten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educational continuity betwee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Doctoral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양지에 (2017). 유치원 교사를 위한 유초연계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문 초록>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 보육교사, 치료사, 부모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조인영 · 이연우 · 함윤경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제와 요구를 파악하여 전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법]** 이와 관련하여 초등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원 실태, 요구를 알아보고자 5명의 보육교사, 5명의 치료사, 10명의 부모들을 심층면담 하였다. 면담자료는 연속적 비교법에 따라 부호화하고 범주화하였으며, 그 결과 3개의 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는 초등 전환을 먼저 경험한 지인 및 온라인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 전환교육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기술을 중심으로 장애유아에게 자조능력 및 수업태도, 기초학습능력,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관련된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 셋째, 보육교사와 치료사, 부모는 초등 전환교육과정에서 장애유아에게 적합한 교육내용이 주어져야 하며 유아교육기관-가정-초등학교의 협력적 체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였다. 또한 장애유아에게 실제적인 사전 연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유아가 전환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진학 준비 과정에서 직접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와 치료사 및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의 개별적 요구를 고려한 초등 전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장애유아가 성공적인 교육적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장애유아, 초등 전환교육, 질적 연구

논문 접수(Received): 2020. 05. 08. / 심사 시작(Examined): 2020. 05. 08. / 게재 확정(Accepted): 2020. 07. 02.